

혼돈의 연말 정국...해법 없고 출구 못찾고

임시국회 '개점 휴업'·선거구 획정은 기준 마련도 못해

의원들 공천·지역구에만 신경...“총선서 표로 심판해야”

혼돈의 연말 정국에서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 대장정을 마치고 10월 12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오는 15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여당의 단독 소집은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의 문은 열렸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조차도 열리지 않은 '개점휴업' 상태다. 더욱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조차 없어 교착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전략을 원내외 모두에 위임했지만 어떤 방침도 내놓지 못한 상태인데다 여야간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해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19대 국회가 비생산성과 무기력함을 드러낸 배경에는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야 모두 닻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정 파트너면서 정부 실정을 견

제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지분을 둘러싼 계파 간 내분이 계속되면서 제1야당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는 등 당 내부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도부 공백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 내분을 수습할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야

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독려 속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 법안 등의 처리에 진력하고 있지만, 집권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고, 주도적·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당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정치력과 협상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생의 모습은 없이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원 개개인들도 공천과 지역구에만 온 신경을 다 쓰면서 국회 업무나 당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주중 업무일에도 지역구에 오래 머무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어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국회의원인지 지방의원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정회됐다 재개할 때는 의결 정족수(의원 정수의 과반)가 모자라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해프닝까지도 벌어졌다. 이처럼 의정 활동은 등한시한채 지역구에만 '올인'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자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 회기 중에 주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천전쟁...목 축이는 서청원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신당 통합도 '엇박자'

박주선·천정배 회동... 공감대 불구 방법론 이견

새정치연합이 통합보다 분열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신당 추진 세력들도 좀처럼 통합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최근 회동, 신당 세력 간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통합신당 창당을 위해 개별적 신당 창당 진행을 중지하고 공동 발기인 대회 등을 열자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천 의원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분열 국면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의원은 설부른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은 호남의 지역적 프레임에 매몰되고 개혁적 상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천정배 의원은 국민회의(가칭) 발기인 대회를 오는 13일 예정

대로 진행하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 선임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신당 세력들이 통합의 비전보다는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신당의 내부 동력이 아직 미진한 가운데 통합의 비전 제시를 통한 야권 재편의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신당의 지지율은 그리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천 의원 진영에서 너무 편협한 신당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도 신당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모 의원은 “신당 세력들이 통합을 통해 야권 재편을 이끌어야 하나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지지를 얻어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5 국정감사 천정배·주승용·우윤근 모범의원상 ... 강기정·이정현·이윤석·박혜자·황주홍·임내현·신정훈 우수의원상



NGO모니터단 선정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2015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는 '국정감사 모범·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모범의원상은 우윤근·주승용(이상 새정치연합)·천정배(무소속) 의원이, 우수의원

상은 강기정·박혜자·신정훈·이윤석·임내현·황주홍(이상 새정치연합)·이정현(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광주 국회의원은 8명 중 4명이, 전남 국회의원은 11명 중 6명이 각각 상을 받은 셈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각계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 구성한 'NGO모니터단'은 가장 공신력 있는 시민 사회계의 입법부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단

체로 꼽혀왔다. NGO모니터단은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피감기관당 3~5명씩 매일 70여명, 연인원 1000여명의 현장 모니터위원을 파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 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낱알이 모니터했다. 또 국회방송(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7명 국회의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정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NGO모니터단은 “을 국정감사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 총선관련 여야의 내분, 선거구획정 등에 함몰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 함량미달(D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與, 기초단체장 총선 출마시 공천 불이익

최고위원회의서 결의

새누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해 공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한 내용을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고위는 불이익 대상에서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실외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심사의 불이익이 적용되는 사퇴 시점은 앞으로 공천 특별기수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하기로 했다. 현역 기초단체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고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野 인사들 집결

11일 열리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 추모식에 야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신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한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12기)이자 인권변호사 활동을 함께 했다. 연수원 선배(8기)인 천 의원은 고인과 법률사무소를 같이 개소한 동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에서는 조 변호사의 추모식에 참석한 야권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1990년 12월12일 폐암으로 별세한 고인은 1965년 서울대 전체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 김근태, 손학규 전 의원 등과 함께 한일회담 반대, 3선 개헌 반대 등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또, 노동·빈민 등 관련 인권 변호에 전념했고 전대일 열사의 평전을 집필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p>
---	--	--